

서울대 강수경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의혹과 관련한 한국 줄기세포 학회의 입장

- 1) 본 한국줄기세포학회는 줄기세포의 과학적 연구를 통하여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인류사회에 기여하려는 한국 줄기세포 연구자들의 공식학회이며, 학술적 교류를 도모함과 함께, 연구윤리에 기반한 노력을 통해 인류의 건강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2) 본 학회는 최근 해외에서 보도되고 있는 바, 서울대 수의대 강수경 교수가 교신저자로 출간한 논문들이 연구결과의 과학적 오류로 인하여 다수 철회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비록 일개 연구진의 문제라 할지라도 학회차원에서 충격과 함께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일이 황우석 사태를 통해 뼈 아픈 자성과 자정의 노력을 거친 뒤에 발생한 것이기에, 본 학회는 이번 일을 보다 철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계기로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입장표명과 함께 일차적 자정적 조치를 취할 것 입니다.
 - 가) 최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강수경 교수의 논문에 있어서 일부 과학적인 오류가 존재함을 인정한다.
 - 나) 문제의 논문들에서 저자들의 과실이 서울대학교의 조사결과에 의해 고의적인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관련자들을 본 학회 임원 및 회원에서 제명한다.
 - 다) 학회차원에서 줄기세포 연구윤리위원회를 상설 운영하여, 논문의 진실성에 대한 자체적 정화노력을 강화하고 연구윤리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 라) 이번 일과 관련하여, 학회차원에서 회원들에게 연구의 결과 못지 않게 과정상의 정직성과 진실성의 중요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3) 본 학회는 이번 일이 불철주야 정직하게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대다수 한국 과학자들의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최근 줄기세포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다각도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국가적 정책의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합니다.
- 4) 아울러, 본 학회는 이번 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줄기세포강국을 향한 국가 백년대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견인차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2년, 5월 29일

한국줄기세포학회 비상대책 위원회

위원장 서해영

(home@stem-cell.or.kr, Tel.031-219-5033)